

로마서 묵상 21  
(1/7/2020, 목)

찬양: 295(417)(큰 죄에 빠진 나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4:9-12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며, 할례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무할례시에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 9-10 절 -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앞 구절에서 창 15:6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말씀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언급하며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말씀은 창 17장에 등장합니다. 몇 차례 강조한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는 선민의 표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표징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11-12 절 -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고, 특히 무할례시에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11 절)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도외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됨을 증거합니다 (12 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할례받음 등 외적 조건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자랑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

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행위, 섬김, 신앙의 연수, 내가 행하는 어떤 봉사의 모습과 선행 등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은혜 받음을 자랑하며, 구원 받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 자랑이고, 겸손하게 만드는 자랑이며, 나를 내세우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세우는 자랑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입견도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율법, 할례, 의롭게 됨, 구원 등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신앙과 관련된 우리 나름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보다 신앙적 의식,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실수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은연 중에 유대인들과 같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였고, 의식을 강조하면서 예배 순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사제들이 예배시에 입는 옷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답시고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 면죄부를 팔아 그 돈으로 예배당 공사비를 충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한 참된 믿음보다 더 강조되고 우선시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믿음보다 앞서갈 때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이 믿음보다 앞서갈 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는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비본질적인 형식주의를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의복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했으며,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핵심과 함께, 참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주를 섬기는 모든 삶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들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들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참된 믿음과 말씀의 본질에 바탕을 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2.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결로 인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치유되며, 법과 질서가 회복되어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3.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으시며 온전한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